

# 성추문 수렁에 빠진 박유천

### 온라인서 美 빌 코스비 사건과 비교... 해외서도 주목

한류스타 박유천(30)이 1주일 사이 여성 4명에게 잇달아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연예계가 전대미문의 성추문 수렁에 빠져들었다.

지난 10일 처음 고소장을 낸 여성은 15일 소 취하를 했지만 16일과 17일 과거 박유천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세 명의 여성이 더 등장에 초대형 스캔들로 비화됐다.

온라인에선 꽃미남 한류스타의 충격적인 성추문이 미국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된 코미디 배우 빌 코스비의 성폭행 사건과 비교되고 있다. '국민 아빠'로 불린 코스비는 2004년 펜실베이니아주 템플 대학에서 여자농구단 코치로 일하던 안드레아 콘스탄드로부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콘스탄드와 비슷하게 당했다는 여성이 지난해에만 미국 전역에서 잇달아 등장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박유천 사건의 경우 고소한 여성들이 피해를 봤다는 시기는 다르지만, 유행어와 관련이 있고 장소가 화장실이란 공통점이 있어 온라인에는 각종 추측과 '설'이 쏟아졌다. 과거 박유천이 일본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름다움(Beautiful)'에서 연상되는 3가지를 꼽아달란 말에 '대화, 한숨, 화장실'을 답했다며 당시 그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그림이 퍼져 나갔다. 또 지난해 한 해외 누리꾼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유천은 왜 화장실 번기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란 글이 캡처돼 다시 화제가 됐다.

박유천이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인기가 높은 한류스타여서 현지 언론 보도도 잇달았다. 그는 그룹 JYJ로 높은 인기를 누렸고 '성공관 스캔들'과 '육담방 왕세자' 등의 드라마를 통해 배우로도 크게 활약했다.

일본에선 한류 매체뿐 아니라 스포츠지, 후지TV 연예정보 프로그램 '논스톱' 등이 '박유천이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며 사건 내막을 보도했다. 한 기획사의 해외사업팀 관계자는 "박유천이 워낙 이미지가 좋았던 터라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난리"라며 "대부분의 매체에서 다뤄졌고 야후 재팬 등 포털사이트 화제의 뉴스에 올랐다. 방송사들의 유료인 주간 정보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지에서 한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인민일보, 중국청년망, 소후신문, 신망오라, 텡싱오라, 아이치이 등 각종 언론과 사이트에서 한국 보도를 주시하며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중국 전문 에이전시의 한 관계자는 "한국 보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며 "중국 일부 팬들은 '유천은 우리가 지킨다'는 해시태그를 SNS에 확산시키면서 아직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니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은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인 만큼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참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로 하고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 '뷰티풀...' 미스터리 vs '닥터스' 멜로

### 장혁·박소담 vs 김래원·박신혜

### 오늘부터 의학드라마 '정면 대결'

두 의학드라마가 안방극장에서 맞붙는다. 장혁·박소담 주연의 KBS 2TV '뷰티풀 마인드'와 김래원·박신혜 주연의 SBS TV '닥터스'가 20일 첫발을 댈다. 의학드라마가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대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007년 초 같은 시기 방영된 SBS TV '외과의사 봉달희'와 MBC TV '하얀거탑'도 방송 요일은 달랐다. '뷰티풀 마인드'와 '닥터스'는 각각 장르 드라마와 휴먼드라마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비롯해 함께 놓고 뜯어볼 만한 구석이 많다.

◇긴장 넘치는 장르드라마 vs 따뜻한 휴먼드라마 = '뷰티풀 마인드'는 초일류 병원에서 환자들이 잇따라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시작된다. 연쇄적인 죽음을 뒤에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하고 이를 파헤치려는 교통순경 계진성(박소담 분)과 이 병원의 수상한 신경외과 의사 이영오(장혁 분) 이야기다.

드라마가 궁극적으로 보여줄 것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던 이영오의 마음 치유 프로젝트다. 그 과정에서 연쇄 살인범을 쫓는 추리 스타일자가 가미되다 보니 장르드라마 성격이 강하다. '뷰티풀 마인드'측 관계자는 "사건이 긴박감 있

게 전개되고 이에 반응하는 인물의 심리 묘사도 치밀하다"면서 "한 회가 끝날 때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전개"라고 강조했다.

'닥터스'는 '뷰티풀 마인드'보다 따뜻함이 넘치는 휴먼 드라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세상을 향해 으르렁대던 여고생 유혜정(박신혜)은 인간에 넘치는 담임교사 홍지홍(김래원)을 만나면서 마음을 연다.

환자의 죽음 때문에 가운을 벗었던 홍지홍은 유혜정을 만나 자신이 결국 돌아가야 할 곳이 병원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13년 후 신경외과 선후배로 마주친 둘은 많은 일을 겪으며 성장한다. 유혜정과 홍지홍의 로맨스가 중점적으로 펼쳐지지만,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는 드라마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 공식을 따르는 작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어떤 의사가 끌리나요"…장혁 vs 김래원 = MBC TV '고맙습니다'(2007)에서 오만한 의사로 분했던 장혁(40)은 이번에는 천재 의사를 연기한다. 이영오는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지만, 타인의 희로애락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장혁이 판타지에 가까운 이 캐릭터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보여줄지나 드라마 흥행뿐 아니라 자신의 연기 인생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장혁에게는 6년 전 출연한 KBS 2TV 퓨전사극 '추노'의 야성미 넘치는 추노꾼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KBS 2TV '아이리스'(2013)부터 MBC TV '운명처럼 널 사랑해'(2014), '빛나거나 미치거나'(2015), KBS 2TV '장사의 신-객주 2015'(2016) 등 그가 수년간 쉼 없이 연기 활동을 하면서 이미지가 다소 마모된 것도 약점이다.

김래원(35)이 맡은 홍지홍은 이상적인 의사이자, 그에게는 가족사에서 비롯된 깊은 상처가 있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준다. 김래원도 장혁 못지않게 이번 작품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MBC TV '내 사랑 팔쥐'(2002)와 '육담방 고양이'(2003) 연이은 흥행을 계기로 로맨틱 코미디의 대표 선수로 뛰어든 김래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부와 불미스러운 일 등으로 한동안 공백기를 보냈다. 김래원은 지난해 SBS TV '펀치'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과오를 바로잡는 검사 박정환으로 열연하면서 명에 회복을 했지만, 연말대상 시상식에서 무관에 그쳤다. 오랜만에 '훈남'으로 등장하는 이번 작품에서는 연기로 재기를 박아야 한다.

오 PD가 제작발표회에서 "정환이 이미지가 있어서 목숨 걸고 연출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강렬한 전작의 이미지를 넘는 것부터가 김래원의 과제다. 로맨스가 두드러지는 만큼 9살 연하 박신혜와의 호흡도 관건이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윤정 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10 갈아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 365 25 TV 블로그 품지락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45 코리아인포그래픽 플러스	40 자치군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태왕) 50 안녕 우리말	00 이웃집 찰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닥터 365 05 세상발견 유레카
12	00 KBS 뉴스 12	00 월화드라마 (백화가 돌아왔다)(재)	00 MBC 정오뉴스 2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신적 새누리당 원내대표)	00 SBS 12뉴스 50 닥터 365(재)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성 55 감성애니 하루	05 통일전망대 55 키즈 사이언스6	55 TV블로그 품지락	
2	00 연중기획-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재)	55 텔레몬스터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3	00 콘서트 필(재) 50 안녕 우리말 55 튜튼생활제2	00 자동공부대상 위키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똑? 똑! 키즈스쿨 55 깨달음劇場	00 3시, 뉴스브리핑 5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새누리당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감성애니 하루	25 UEFA 유로 2016 하이라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배틀 트림 스페셜(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불러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리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 24 55 수상한 휴가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	00 월화특별기획 (콘서트)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스동상이몽 랜칭아 랜칭아
12	20 해외결정드라마 (닥터 포스터)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특선 MLB 핫토크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 생생 영어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내 아이의 은밀한 비밀)	14:00 미술탐험대	19:30 EBS 뉴스
05:30 건강한 아침	10:30 한국기행 (재)	14: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5:40 성공시대 가능 한국인 (제품 표면의 이물질을 없애라! 표면처리 기계 이원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명희의 소고기감자찌개와 메추리알 장조림)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11:00 세계테마기행(재)	15:15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40 한국기행(재)	15:30 꼬마기사 마이클	<시청자와 함께하는 1부 세 친구의 바다, 시막, 발>
07:30 로보가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5:40 으랏차차 아이쿠	16:00 캐니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시대공간 (스노그리 구경)	16:30 코코코 다코	<오지마을에 사랑이 산다 1부 놀산마을 삼총사가 사는 법>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6:45 뽀롱뽀롱 유치원 1~3(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한라산 늑대개>
08:45 코코코 다코	13:40 즐겨주 수학 EBS MATH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22:45 달라졌어요
09:00 캐니멀	13:50 원더볼츠(재)	17:45 로보가 폴리	23:35 시대공간
09:30 원더볼츠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24:05 지식채널 e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0일 (음 5월 16일 癸酉)

<p><b>子</b></p> <p>48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생 그치지 힘들지 않고 차차하게 된다. 72년생 징후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84년생 과신하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2, 14</p>	<p><b>午</b></p> <p>42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하겠다. 54년생 침착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66년생 오늘 일을 미룬다면 쉽게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미뤄지다가 혼쭐을 날을 가능성이 있다. 78년생 안정 궤도에 진입하라. 행운의 숫자 : 57, 30</p>
<p><b>丑</b></p> <p>49년생 원인은 따로 있으니 세밀하게 찾아본 후에 대처하라. 61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73년생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다. 85년생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니 우회로를 모색하라. 행운의 숫자 : 63, 86</p>	<p><b>未</b></p> <p>43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실득력의 차이가 크다. 55년생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67년생 성사의 기미를 띠고 있는 편이다. 79년생 임기응변에 능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5, 84</p>
<p><b>寅</b></p> <p>50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니 신중하라. 62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습고대하던 것을 마침내 이루리라. 74년생 중종의 폐해는 의외로 대단할 수 있으니라. 86년생 마음이 설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91</p>	<p><b>申</b></p> <p>44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느니라. 56년생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관망은 편이다. 68년생 자물의 성장을 촉진하는 햇볕이 내리쬐고 있으니 흠뻑 흡수하고 제대로 활용하라. 80년생 기다려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97, 53</p>
<p><b>卯</b></p> <p>51년생 견색국면으로 접어드는 기세가 역력하다. 63년생 조건부 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거래 방법까지 모색하라. 75년생 의형님 드러내도 의미는 충분하다. 87년생 과격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20, 26</p>	<p><b>酉</b></p> <p>45년생 총본하 이완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익이다. 57년생 모르면 악이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이로다. 69년생 발효되는 징후로 인식하면 틀림없겠다. 81년생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져 애를 먹겠다. 행운의 숫자 : 03, 17</p>
<p><b>辰</b></p> <p>40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52년생 단명한 목적 아래 모여드는 이들이 있다. 64년생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힐 것이다. 76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88년생 주도면밀한 판단력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77, 28</p>	<p><b>戌</b></p> <p>46년생 양호하지만 마무리가 아쉽다. 58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잊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 주는 이가 보인다. 82년생 바라만 보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니 차분하게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66, 71</p>
<p><b>巳</b></p> <p>41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3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65년생 강력한 기세이다. 77년생 견주어 본다면 한눈에 쉽게 드러나리라. 89년생 변화하는 정황까지 감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9, 43</p>	<p><b>亥</b></p> <p>47년생 용도를 달리한다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59년생 과거에 대한 경험을 되살리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71년생 노출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형세이다. 83년생 열린 마음으로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4, 8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